

17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마 25 : 13).

신앙고백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찬 송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새 176장, 통 163장)

기 도 담당자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5 : 1~13

성경말씀 경청하기 말씀 해석을 통해 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대략 일주일씩 계속되었는데, 혼인예식은 저녁이나 밤에 거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시간을 즐기다가 한밤중에 신부의 집을 향해 행진합니다. 신부는 신랑이 도착하면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나와 등불을 켜고 신랑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부가 신랑을 따라 신랑의 집을 향해 가는 행렬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 주고자 하신 비밀은 무엇일까요?

1 후회하지 않으려면 슬기롭게 준비해야 합니다(1-12절).

2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13절).



성찰하기 이야기를 읽고 질문을 통해 깨달은 것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인생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순간을 잊음으로 큰 과오를 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안전등을 발명한 영국의 화학자 데이비입니다. 데이비는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연구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자신의 결혼식 날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혼식 당일에도 어김없이 연구실에서 실험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 혹시 잊으신 것 없으세요?” 데이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뇨, 아무것도…….”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결혼식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 말에 데이비는 비로소 정신이 들어 “앗! 이 일을 어떡해!” 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가 등장해야 할 결혼식장에는 신부와 하객만이 허무한 표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신부는 결혼식을 잊어버린 사람이라면 자신이 어떻게 평생을 믿고 살 수 있겠느냐며 파혼을 하였습니다. 결국 데이비는 일생을 독신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깨어 있지 못해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깨어 있지 못하여 개인의 일정을 망쳐 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결단하기 실천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후 나누는 시간입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금 내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으로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슬기롭게 깨어 준비하겠습니다.”

봉헌찬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새 180장, 통 168장)

오늘의 기도와 주기도 기도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한 후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항상 깨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졸며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